청련사 생전예수재, 경기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9월 9일 봉행

양주 청련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가 보존 · 계승해 온 전통의식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 지정이 확정될 경우 청련사는 서울 봉은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전예수재를 무형문화재로 계승하는 사찰이 된다.

태고종 청련사(주지 상진)와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는 9월 9일 청련사 경내 마당에서 '불기 2565년 생전예수시왕생칠재' 중 2재를 봉행했다. 이날 생전예수재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생전예수재 조사위원들도 참석해 시연을 참관했다.

생전예수재는 오전 10시 30분, 장엄번이 경내에 장엄한 가운데 탑을 중심으로 괘불단과 어산단을 중심으로 엄수됐다. 법주는 상진 스님이, 거진 스님과 효암 스님이 바라지를 맡고 륜보, 효찬, 효진, 현담, 지휴, 혜명 스님이 작법으로 재를 이끌었다.

사회를 본 심곡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전생의 빚을 갚아 현세의 자신을 위해 지내는 49재로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번뇌를 없앨 뿐 아니라 세세생생 함께했던 인연들에게 참회하는 의미가 담겼다"며 "무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만, 죄업에 대한 뼈저린 참회가 담긴 전통불교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의례의 핵심인 범패와 작법무, 장엄을 사중 스님들

경내마당서 불기 2565년 2재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심사도

이 온전히 전승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례 설행이 청련사에 상주하는 스님들에 의해 설행될 뿐 하니라 전통의식인 재의 핵심을 범패로서 이끌며 사찰 사부대중이 현재까지도 이를 계승해 봉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전예수재에 앞서 괘불단으로의 괘불 이운 의식이 진행되자 경내 대중 모



양주 청련사가 9월 9일 '불기 2565년 생전예수시왕생칠재' 중 2재를 봉행했다.

두 합장한 채 집중했다. 괘불을 이운하는 신중작법은 생전예수제 거행에 앞서 모든 도량과 불법을 수호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어 진행된 조전점안과 경함이운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전생의 업을 명부고사전에 바치는 형식이다. 설재자의 공덕을 회향하게 돼 다음 생에 복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생전예수재는 명부의 사자를 청하고 보내는 사자봉송 불공의식과 소청명부 의식, 소청고사, 경신봉송, 전시식 봉송, 회향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청명부는 지장보살과 명부시왕, 제성중 등을 청해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으로 예수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청련사는 예수재 봉행의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로, 인례스님을 따라 전 대중스님과 신도들이 시왕번을 모시고 탑돌이를 하는 고유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진 소청고사는 고사단에서 고사불공을 올리고 금 · 은전을 영단으로 이운해 제사를 모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음회와 합장단 등 청련사 신도들이 인례 벽산 스님의 집전을 따라 동참해 명실공히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의식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전시식은 장엄번을 제거하는 의식에 이어 공덕게를 염송하며 시식불공을 올리고, 금은전을 제거해 소대로 이동하는 의식과 경신봉송, 봉송회향으로 이어졌다.

법주 상진 스님은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사중에 어장(법주)과 의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지금까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무형문화재 지정을 전승단체로서 추진하는 이유 역시 후배들이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도제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청련사는 신라 흥덕왕 2년 '안정사'라는 사명으로 창건된 후 조선초 무학대사가 중창,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나라의 안정을 발원하는 도량으로 역할했다. 현재 양주 청련사는 안정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법맥을 계승한 도량으로, 2010년 완공됐다. 창건 이후 여덟 번째 중창이다.

구례 천은사 포대화상 조성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가 지난 9월 7일 경내에 포대화상을 조성하고 대중 친화적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팔상전 앞마당에 있는 일명 '복돼지'로 불리는 바위 위에 2m 크기 석조로 조성된 포대화상 점안식은 화엄사 문장 종국스님의 증명으로 인우스님, 대진스님, 천태암 주지 대주스님을 비롯해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주지 대진 스님은 "포대화상은 뭇 중생들에게 복과 지혜를 나눠주는 성인으로, 이곳 천은사 포대화상은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이 복돼지 위에 조성하게 되었다"며, "전국 어디에도 있지만 이곳 포대화상을 통해 지치고 힘든 시절 마음속에 웃음 한가득 가져가길 기원하며, 지리산의 넉넉함과 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나눠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조성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대의 스승' 태공당 월주 대종사 49재…"속환사바 하소서"

9월 8일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
종단 지도자 · 문도 비롯 사부대중 운집해 추모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시대의 스승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49재가 모악산 금산사에서 엄수됐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일원)는 9월 8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막재를 봉행했다. 49재는 스님이 생전 예토에서 펼친 가르침과 업적을 되새기고 유훈을 잇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회 의장 세민 스님과 수석부의장 대원 스님 등 원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종회의장 정문 스님 등 의원 스님들,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일오 · 원타 스님 등 전국선원수좌회 스님, 전국비구니


9월 8일 금산사에서 열린 태공당 월주 대종사 49재에서 대중스님들이 추모영상을 보고 있다.

회장 본각 스님 등 불교계 각 분야를 이끄는 스님들이 참석했다.

49재는 삼귀의례로 시작해 헌향과 헌다, 헌화, 종사영반, 입정, 월주 대종사의 생전 육성법문으로 이어졌다. 대중들은 추모와 회고로 스님의 빈자리를 애도했다.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이 헌향했으며 도원 스님과 도법 스님이 헌다로 스승의 유지를 기린 데 이어,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종사영반을 집전한 가운데 종단 대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헌화와 문도 스님들의 헌화, 조문대표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원로의원, 종회의원,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각 산하기관 대표와 신행단체 등의 헌화도 줄을 이었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49재의 의미를 설하며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이 시대 한국불교 최고 선지식으로, 지구촌 곳곳의 중생제도는 물론,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큰 업적과 공덕을 남겼기에 이미 도솔천 내원궁에서 여여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평생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饒益衆生)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큰 스승인만큼, 사부대중은 그 빈자리를 새삼 실감하며 유훈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모아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문도인 원행 스님은 추모의 글에서 "스님을 보내드리는 재를 올리는 지금도 미욱한 제자들은 그 가르침이 그립고 또 그립다"며 "저희 사부대중은 스님이 열반하신 이후 종문의 지남과 귀감을 잃어버린 허허로움을 채울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모악산 영봉에 지혜의 달은 지지 않았고 뒷산에서 울던 사자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며 "지나간 바람은 대종사의 가풍을 드날리고 일초일목은 대종사의 일기일경을 나툰다"고 추모했다. 도영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회고사를 전했다. 스님은 "월주 대종사는 정화의 기치를 드높였던 면모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 한평생 청정한 수행자의 남다름이 있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양말을 사 신으시라고 공양받으신 3만 원까지도 제게 주시며 '수입으로 잡아서 살림에 보태라' 고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이날 49재에는 10.27법난 피해자들을 대표해 회장 명선 스님의 추모도 이어졌다. 명선 스님은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신군부의 총칼과 군화발로 새벽 3시 신성한 법당에 들어와 만행의 피해를 발생했을 때 대종사께서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불교계 역사에 남겨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보여줘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빠른 시일내에 10.27 법난피해자법이 제정돼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길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월주 대종사 문도 일동은 '감사의 글'을 통해 "평생 자비행과 보살행의 길을 걸어오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종단장과 49재에 동참해 주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사부대중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문도들은 대종사께서 늘 강조하신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큰스님께서 못다한 원력을 실현하고 유지를 계승하는 데 사부대중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 금산사=송지희 기자
전북지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봉송고불축대법회

세계불교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봉송고불축하법전 대법회'가 9월 10일 평택 원평포교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스리랑카의 국민들을 돕는 한편, 스리랑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고 양국의 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취지로 열렸다. 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석가산 스님은 이날 후원물품인 동국제약 약품(1억 5000만 원 상당), 라면 500상자, 마스크 5만 장을 스리랑카 주한대사 사지 맨디스 박사에게 전달했다.

석가산 스님은 법어에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먼 이웃 스리랑카에까지 널리 전달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